

대학평의원회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17.11.09
의원수 : 11명	출석의원수 : 11명

1. 회의일시 : 2017년 11월 16일(목) 오전 11시

2. 회의장소 : 대전보건대학교 9동 2층 대회의실

3. 의원 출·결 현황

이명환, 김택균, 양용원, 김용태, 정충량, 김용걸, 이광성, 조미경, 한기복, 장선훈, 이현진 등 총 11명




4. 회의안건

- 1) 제1안 : 2017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 자문
- 2) 제2안 : 남자생활관 신축공사(안) 심의
- 3) 제3안 : 대학 교육시설(4동·7동·18동) 철거계획(안) 심의

5. 회의내용

[의 장]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추운데 전원 참석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 대학 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참석에 의해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총 3개로 제1안은 2017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에 관한 자문의 건이고, 제2안은 남자생활관 신축공사(안)에 관한 심의의 건 그리고 제3안은 대학 교육시설(4동·7동·18동) 철거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 등 3개 안건을 자문 또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안 부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무부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1안 설명해주시지요.

[기획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윤호입니다. 2017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안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에 대한 학교부담 승인에 관한 추진근거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9조3의 제1항 등에 의하여 법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학교법인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직원의 4대보험료 중 법적으로 본인이 내는 것 이외에 나머지 반, 또는 일부에 대한 부분을 학교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학기관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학교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승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납부해야할 총 법정 부담금은 7억3천만원하고, 퇴직수당의 40%인 1억2천9백만원, 총 8억5천9백만원의 법정 부담금이 있었는데, 법인에서 4억5천만원을 법정부담금으로 주셨고, 이후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학교부담금 4억9백만원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이광성	
------------	---	------------	--	------------	---

2017년 예상비용은 8억1천만원정도로 2016년 7억3천만원에서 약 8천만원정도 증가했는데 사유는 급여 인상분입니다. 사실 2017년 급여는 동결되었지만 호봉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자체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8천만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장기근속 퇴직자분들이 다른 해보다 많아 퇴직수당에서 전년대비 1억3천만원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총 2억1천만원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법인 부담금은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4억5천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인에서 계속해서 법인 부담금을 늘려주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수익사업이 생각하는 것 같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6억2천만원정도를 학교부담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기위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사안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비가 2억2천만원정도 더 증액하는 거죠?

[기획예산팀장] 예, 증액은 장기근속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해에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기근속퇴직자들이 많아 전년대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 장] 금년에 몇 분이나 퇴직을 예상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올해 퇴직하시는 교직원분들은 총 8명입니다.

[김용걸의원] 향후 퇴직하시는 교직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우 교비의 지원금 역시 증가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팀장]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해에 얼마만큼 퇴직하시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지속적으로 법인부담금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겠다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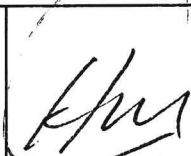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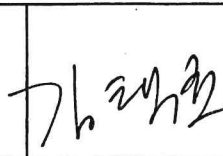

[김용걸의원] 교육부 승인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팀장] 사실 여러 사립대학들 중 법인부담금을 100%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법인의 경우 4억5천만원을 부담해주시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기 때문에 승인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광성의원]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떤지 묻자 [김용걸의원]이 동의하고 [조미경의원]이 제청하다.

[의 장]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이의가 없음을 표시하자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음 안건인 남자생활관 신축공사(안)과 대학 교육시설(4동·7동·18동) 철거계획(안)에 관한 심의는 주무부서가 동일하여 두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모두 듣고 종합하여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주무부서의 설명을 요구하다.

[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사무처 관리팀 이길원입니다. 관리팀에서 승인받을 사안은 남자생활관 신축공사(안) 및 대학 교육시설 건축물(4동·7동·18동) 철거계획(안)으로 먼저 남자생활관 신축공사(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보시면 신축공사 부지는 원래 카페베네 자리로 2015년에 매입했습니다. 원래는 교육 연구시설로 계획을 세웠다가 선화동에 남자생활관이 있는데 거리가 멀고 시설이 노후 되어 학생들이 지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연구시설보다는 남자생활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 복지차원에서 더욱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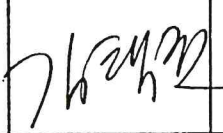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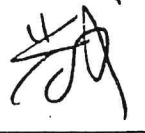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이광성	
------------	---	------------	--	------------	---

우리대학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교비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금번 공사에는 민자사업 방식인 BTO방식을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자사업방식은 우선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우리대학 법인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타당성 검토를 득하면 협약을 맺고 확정되면 생활관을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관 건립을 하면 학교에 채납 후 30년간 운영권을 부여하고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차입금은 참고로 5년 거치 25년 상환입니다. 저희가 6년차부터 운영수익으로 상환을 해야 될 상황으로 기대효과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관을 건립하여 재학생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대학의 재정부담 역시 단기간 완화 되는 효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남자생활관 통학버스 운행비용은 연간 약 8천만원이 절감되고 현재 남자생활관을 매각한다면 비용은 조금 더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 예상비용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하1층과 지상 1층에는 복지시설, 2,3,4,5층은 생활실 3인 1실로 계획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주거공간은 1인실 개념입니다. 기숙사 건립을 위해 사학진흥재단에 재무 설계를 의뢰 했을 때에는 70억정도가 예상되었습니다. 그 70억에는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용, 제세공과금 등이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70억중에서 대학이 10%로를 부담을 하고, 주택도시공사 및 사학진흥기금이 9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교비는 7억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설계하고 감리용역비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비로 선지출하고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향후 대체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70억중에 63억은 주택도시 및 사학진흥기금 예산으로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은 설계의 경우에는 설계업무와 조서작성 및 인허가 업무에 대략 4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선존은 지상에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게스트룸을 마련하였고 세탁실의 경우 의견을 받다보니 한곳에 모아놓는 것 보다 층마다 있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추후에 결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상 1층에는 복지시설로 편의점, 독서실, 행정실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학생들이 복합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다이닝룸 등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 실에 3명 학생이 각각 1인실처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생활실 하나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이닝룸이 있고 취침을 위한 방이 3개가 설치되어 개인적인 공간도 보장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4,5층은 똑같이 형성될 계획이고 한 생활실에 4인이 들어가는 방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인원을 생각해서 화장실 2개, 샤워실도 2개를 설치하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동, 7동, 18동 교육시설 건축물 철거계획(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보시면 4동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4동은 1,2층이 유치원이고 나머지 층은 유아교육과와 패션코디컬러리스트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7동에는 총동문회사무실이 있습니다.

현황도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면 4동, 7동, 18동이고 18동은 폐수처리조가 하나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있는 정화조와 수영장까지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연면적은 1,200평정도 되고 건축면적은 320평정도가 됩니다. 건물연수는 4동이 35년, 7동이 32년, 18동이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착공일로부터 약 6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비용은 4억4천만원으로 분야별로 보자면 건축이 약 3억3천만원, 건축을 이 중 철거비용이 약 2억원 3천만원 정도이고 공사시 발생하는 석면은 허가를 받고 처리할 예정이며 비용은 약 1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이광성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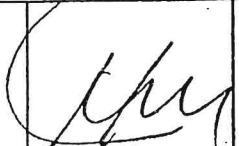


시설쪽에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사한지 4년~5년밖에 안되어 칸막이라든지 도기, 세면대 등 사용가능한 자재는 철거한 후에 9동이라든지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1동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없는 소변기인데 이런 것들을 교체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칭 유아교육센터를 11월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준공승인이 떨어지면 1월 중순에 유아교육과부터 이전을 하고 2월에는 유치원과 패션코디·컬러리스트과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7동관을 이전할 예정인데 총 동문회사무실과 편의점은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비워지게 되면 4월이나 5월에 본격적인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거가 완료되면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이 건축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공간 등 학생편의를 위한 시설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변전실에 있는 기기들과 GHP는 철거 후 6동과 9동, 8동 등 현재 가동 중인 GHP를 위한 소모품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가스 이전인데, 가스관이 4동 옆으로 통과하고 있는데 4동을 통과해서 6동, 9동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 가스관을 절단해서 운동장 가운데를 가로질러 6동 앞으로 해서 9동으로 가야하는 생각보다 큰 공사가 진행되기때문에 대략 9천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비용은 약 4억4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감가상각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상적인 건물감가상각은 40년인데 앞서 보고 드렸듯이 준공일 기준 건물사용연수는 4동 35년, 7동 31년, 18동은 13년으로 나머지 연수에 대한 감가상각이 안된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면 총 1억9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승인이 되면 자산을 손실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 중 먼저 남자생활관 신축공사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평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의원] 신축될 남자생활관의 전체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관리팀장] 현재 163명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자사업방식을 하다 보니까 입사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1년 12달해서 70%이상의 입사율을 유지하여야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율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 같은 경우 한 학기 후 퇴실을 하고 있는데 부산 동의대 등 타 대학을 가보니 기본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입사를 받으면서 비용을 일정부분 할인해주면서 입사율을 높이고 있었고, 방학 때는 지역 캠프라든지 여러 각종 행사들을 해서 한 40%정도 유지를 하고, 학기 중에 한 90%~95% 정도 유지를 하여 전체적으로 약 80%정도 유지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대학교는 민자사업방식을 해서 보기에는 교비가 10%만 사용되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의원] 지금 입사율이 70%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대학 생활관의 경우 정원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이광성	
------------	---	------------	--	------------	---

[관리팀장] 지금 남자생활관과 여자생활관을 종합해보면 63% 정도 유지되고 있고, 학기별로는 1학기의 경우 95%~97%, 2학기에는 약 85%, 방학 중에는 20%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방식과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의원]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생활관 건립에 따른 비용으로 생활관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와 또 한가지는 학생들이 생활관을 이용하기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통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통제도 없이 생활관이 운영되는 것 역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관비의 경우 산출한 결과 최소 한 달 기준 23만원 정도의 생활관비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대학의 경우 야간운동을 위해 사감만 10명 정도 채용하여 근무하고 계신데 생활관을 신축하게 되면 사학진흥재단에서 행정실장 1명, 사감 1명이 주간에 근무하게 되며 야간에는 CCTV를 관리하는 경비 1명이 배치될 예정이고 12시까지는 자유롭게 입실과 퇴실을 할 수 있게 되고 카드를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보안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야간에는 밤 12시가 되면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되 부득이한 경우 경비를 통해 출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의 이용은 줄어들 수 있으나 그 만큼 생활관내에 편의시설을 갖춰 준다면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의원] 답변 감사드리며, 충남대학교처럼 세콤이 야간에 대기하면서 사고발생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통제라기보다 학생에게 자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좀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리팀장]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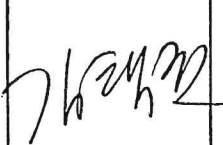

[김용걸의원] 민자대출 하게 되면 실제 생활관 운영은 누가 합니까?

[관리팀장] 운영은 대학이 합니다.

[김용걸의원] 사학진흥기금 90% 받는 것은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관리팀장] 5년 후부터 상환 가능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자 원리금 상환이 목적입니다.

[의 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는 BTO 사업방식으로 사학진흥기금에서 주가 되어 신청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예산편성하고 통과가 되면 사학진흥기금을 신청하고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요건에 사학진흥기금하고 우리대학 법인 이사장님이 이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이 이사장이 되고 완공 후 생활관 운영 시 우리대학 법인이 이사장이 됩니다. 자금은 5년 거치 25년 상환으로 30년 후에 기부채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30년까지 운영이 되면 자동으로 건물이 우리 소유가 되고 실질적으로 중간 중간 운영 상태를 사학진흥기금에서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생들 활용도 등을 점검하기위해 특수목적 법인이 관리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기숙사 완공 후 우리대학 법인이 이사장이 되어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이광성	
------------	---	------------	--	------------	---

그래서 지금 우리학교에서 예산문제에서 70억을 내놓았는데 70억 예산중에 10%인 7억만 우리학교 예산을 세우고 일을 제대로 추진 시 63억은 얻어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주택도시 및 사학진흥기금 육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관리팀장] 기금을 받을 때 90% 중 사학진흥재단이 44%, 주택도시기금이 46%를 출자합니다.

[의 장]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5층 건물이 70억으로 신축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리팀장] 이제 평면도작업 후 설계에 들어가는데 예산이 70억이고 경영방침이 최소비용으로 하고 금액을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어 학교의 부담을 덜고 목적하는 사업을 달성하여 학생들에게 편안한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의원] 중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건지요?

[관리팀장] 용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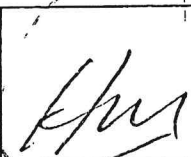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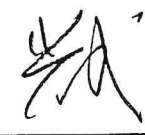
[김택균의원] 점점 사회문화와 복지가 향상됨에 있어 기숙사를 지어놓고 기숙사 비용이 점점 상승하는데 비해 주변 민간업자 하숙 업자들은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상반된 시장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기숙사 시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비교해보면 학생 유치 요소, 소위 신입생유치나 재학생 관리에 유리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학측에서 운영의 방법이 관건이지 사학진흥기금 및 LH의 자금을 빌려 투자를 한다라고 심의 할 때 이사업이 안되겠다 하면 사학진흥기금에서 부결을 시킵니다. 하나 가능하다하면 OK를 해주거든요. 그러더라도 학교가 준공 이후 법인이사장이 특수법인의 이사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이유는 책임을 사학진흥기금에서 학교법인에게 책임을 주는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는게 좋다고 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학생을 유치하고 기숙사비를 책정하고 방학 중 공실률을 줄이는 것을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학생수는 감소하고 학생 유치로 학과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생활관이 최신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좋은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승인을 하고 나중에 효과적인 법을 가지고 공실율을 줄이고 입사율을 높일수록 결국 남는 금액은 계속 학교 법인이 적립해서 용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교직원들이 공감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근심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1인 3실을 2인 1실로 줄인다면 좋지 않겠는지요?

[관리팀장] 고민을 해봤지만 전체적인 면적이 부담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양용원의원] 학생들에게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타 대학이 23만원이라 우리도 23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임대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입을 더 늘리고 학생에게 저렴한 생활관을 제공해야 공실률도 좋고 또 다른 방법으로 방학에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팀장] 그래서 편의점을 학교에서 직접운영하는 방안 또는 임대를 하는 수익사업을 생각중입니다.

[이광성의원] 생활관 신축에 대한 건은 학생들의 복지향상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안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에 [한기복의원]이 동의하고 [장선훈의원]이 재청하다.

의 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이광성	
------------	---	------------	--	------------	---

[의 장] 부의안건에 대한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며, 의원님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이에 다른 의원들이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표시하자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마지막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 줄 것을 각 의원과 발표자에게 요구하다.

[이광성의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을 발표할 때 봤고, 재활용 부분에 고민하시는 부분을 보니 수고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걸의원] 철거하면 그 자리에 체육관 시설이 건축되는 것인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관리팀장] 체육관과 같은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광성의원]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철거하는 것으로 우리대학의 미래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이 차츰 구체화되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안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에 [장선훈의원]이 동의하고 [김용걸의원]이 재청하다.

[의 장] 부의안건에 대한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며, 더 이상 질문이 없는지 의원들에게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세 번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의원들에게 요구하며 금일 부의된 안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자문 및 심의를 했고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므로 부의안대로 확정하고 회의를 마칠 것을 말하다. 이어 회의록의 간서명은 의장과 김택균의원, 이광성의원이 하기로 의원들간 합의하고 회의를 종료하다.(11:52분 산회)

2017년 11월 16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의원회

평의원 : 이 명 환

평의원 : 김 택 균

평의원 : 양 용 원

평의원 : 김 용 태

평의원 : 정 충 량

평의원 : 김 용 걸

평의원 : 이 광 성

평의원 : 조 미 경

평의원 : 장 선 훈

평의원 : 한 기 복

평의원 : 이 현 진